

조선시대 첩리의 명칭과 유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NAME AND STYLE CHANGE ON CHOPNI IN CHOSUN

덕성여자대학교 의상학과

강 사 장 인 우

Dept. of Fashion Design, Duksung Women's University

Instructor : CHANG INWOO

〈목 차〉

- | | |
|--------------|---------------|
| I. 서 언 | III. 첩리의 유형변천 |
| II. 첩리의 명칭변화 | IV. 결 언 |
| | 참고문헌 |

〈Abstract〉

Name and change of style of Chopni were inspected to understand transformation of Chosun costume.

During Chosun era, Chopni had two significant roles, (general) daily clothes and Yungbok; prior to the mid-Chosun, it was largely used as daily clothes but after the mid-Chosun it was mainly used as Yungbok. In the case of daily clothes, Chopni was utilized as under-coat(褻衣) among various coats(袍), and had the name of Chopni symbolizing function of clothes. In the case of YUNGBOK(戎服), it was used as outer clothing of military men, had the name of Cholik symbolizing form of clothes. These facts represent that emphasis was placed on beauty in the case of YUNGBOK(戎服) to confer ceremonial meaning as outer clothes.

In transformation of costume examining by change of Chopni, we can see that name and style are changed with role of clothes. That is, when clothes is used as under such as under-coat(褻衣), name and style mainly represent function whereas they mainly represent beauty when used as outer clothes such as YUNGBOK(戎服). In addition, change of role might be consider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which changed name and style dependently. That is, change of style produced change of name, and time lag between change of style and change of name was found to be about 1 century.

1. 서 언

역사이전 시대부터 비롯되어 온 인간의 의복은 신체를 장식하거나 혹은 보호함으로써 단순히 인간이 자연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복은 사회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는 형태변화를 하여왔으며, 이 때 그 명칭도 함께 변화하였음을 알게 된다. 우리는 문헌과 회화 그리고 실물에 나타난 의복의 명칭과 형태를 통하여 복식사 내지 의복의 발전사를 추적해 볼 수 있다. 특히 문헌과 실물자료를 통하여 그 연구가 가능한 조선시대에서는 동일 의복임에도 불구하고 첩리·장의·장의·저고리 등에서 의복의 유형변천과 함께 명칭변화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의복의 착용역할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고, 또 각 구성요소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따라서 의복의 유형과 명칭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는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의복명칭을 규정짓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의복유형이며, 또 이러한 유형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복식변천이 어디에 근거하는 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첩리에 대한 선행연구는 시대적 변천이 중심을 이루며¹⁾ 명칭변화에 따른 연구²⁾ 등이 있으나 대개의 연구가 명칭과 유형의 변화를 각각 다루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연관시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우리는 출토복식의 출현으로 간접자료가 아닌 실물을 통한 보다 구체적인 조선시대의 의복형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과거복식 가운데 포류(袍類)는 남성위주의 의례복(儀禮服)으로서 공복(公服) 이외의 또 다른 공적인 의미를 지님으로써 문헌에서 다른 의복보다 비교적 많이 언급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조선시대 포류(袍類) 가운데 「첩리(帖裏)」는 그 명칭이 「철익(綴翼)」·「천익(天翼)」 등으로 혼용되고 있으며, 또 그 유형도 상·하(上·下)연결선에 의한 변화를 볼 수 있다. 더욱이 조선중기 출토복식 중 첩리에서 뚜렷한 두 유형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정 시기 첩리에서 나타나는 명칭과 유형의 변화를 통한 그 연관관계를 살펴봄은 의복에 있어서 명칭과 유형이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첩리명칭의 종류와 그 시대적 분포를 살펴보는 문헌연구와 출토복식에 나타난 첩리의 형태·구성유형·색채에 의한 유형을 살펴보는 실물연구를 통하여 착용역할에 따른 명칭과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첩리의 명칭변화

조선시대 문헌에서 「첩리」를 일컫는 일반적 명칭에는 「털릭」·「철익(綴翼)」·「방의(防衣)」·「첩리(帖裏)」·「천익(天翼)」 등이 있다. <표 1>은 조선시대 문헌 가운데 「첩리」·「철익」이 언급된 문헌의 편찬 연대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조선시대 예서가 집중된 조선중기³⁾의 국조오례의·상례비요·상례고증 등의 가례서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한국복식사자료집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선행연구에 나타난 용어의 혼용⁴⁾을 확인할 수 있다.

1. 첩리(帖裏·帖裡)

「첩리」라는 명칭은 조선시대 전 시기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조선중기까지 집중적으로 나

1) 金正子, 帖裏考, 복식8호, 1984.

金贊珠, 첩리에 관한 服飾史의 研究, 서울대학교, 碩士學位論文, 1980.

趙今衍, 帖裏에 關한 考察, 建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0.

2) 이은주, 첩리의 명칭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3권 3호, 1988.

첩리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13권4호, 1989.

3) 장인우·이춘계, 15~17세기 禮書에 나타난 殮襲衣와 그 意味, 韓國服飾學會, 第25號, p.271, 1995.

4) 김찬주, 「綴翼의 服飾史的 研究」, 서울대학교 碩士學位論文, p.3~p.5, 1980.

용어가 크게 초기와 중기로 달리 사용되기는 하나 시대별로 뚜렷하게 구분되기보다는 혼용.

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첩리」의 의미를 살펴보면 첩(帖)은 「이중(二重) 겹」의 뜻이고, 「리(裏)」는 ‘안’이란 뜻으로 「안에 입는 옷」 혹은 「겹쳐입는 옷」이다. 문헌에 나타난 이러한 「첩리」는 왕은 물론 사서인(士庶人) 모두가 신분에 따라 치마(裳)의 폭수를 달리하여 착용한 일상복⁵⁾이었으며, 이는 출토복식 가운데 첩리의 상당량이 조선초기에 집중된 것으로도 당시 첩리가 일반적으로 착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표 2) 참조). 또 이러한 일상복 가운데 첩리의 착용역할은 신분에 따라 곤룡포 혹은 단령에 답호와 함께 착용한⁶⁾ 의례복의 받침옷(襲衣)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중기까지 「첩리」라는 명칭이 지니는 의미와 그 착용역할이 받침옷으로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반면 조선초기에 있어서 첩리의 착용역할이 받침옷이 아닌 용복으로 착용된 경우는 그 명칭을 「방의」⁸⁾ 혹은 「털릭」⁹⁾을 사용하고 있어 착용역할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였음을 볼 수 있다. (표 1) 참조)

그러나 조선 중기이후 문헌인 17세기 『상례비요(喪禮備要)』나 『상례고증(喪禮考證)』에서 염습의(殮襲衣) 의복가운데 포오(袍褙)가 첩리 대신 나타나고 있다.¹⁰⁾ 여기서 『상례비요』가 당시 실행의례를 중심으로 저술한¹¹⁾ 조선시대 최대의 의례서로 그 의미

를 지니고 있는 점과 또 당시 염습이란 착용의복을 사용하였음¹²⁾을 반영할 때 이는 첩리가 더 이상 일상복이 아님을 시사한다. 더욱이 출토복식 가운데 「첩리」의 양이 조선 중기이후에서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도 이것이 반영된 결과할 수 있다. 그러나 「첩리」는 조선중기이후의 문헌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착용역할이 일상복이 아닌 용복임을 볼 수 있다.(표 1) 참조) 즉 이는 의복의 역할이 바뀌었으나 명칭은 이전의 것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이후에는 「첩리」라는 명칭 대신으로 「천익(綴翼)」이 나타나지만¹⁴⁾ 명칭 「첩리」도 후기이후 조선말기까지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대개는 그 착용역할이 받침옷임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염습의에서와 같이 받침옷일 경우는 지속적으로 속옷의 의미를 지닌 「첩리」로 언급하였음을 볼 수 있으며, 또 실록 등의 문헌에서 앞 시기의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경우로도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말기 안동 김씨 출토유의(出土遺衣)에서 「첩리」를 볼 수 있다.¹⁵⁾ 이는 조선후기와 말기에 염습의 가운데 「첩리」가 사용되었음을 뜻하며, 이 때의 신종록¹⁶⁾에는 「천익」으로 언급되고 있어 당시 실제 착용역할에 관계없이 일반에서는 명칭 「천익」이 정착되었음을 의미한다고

5) 經國大典, 禮典, 雜令, …士族衣服帖裏乃裳母過十三幅 庶人衣服九升帖裏乃裳十二幅…
 6) 國朝五禮儀, 王, 凶禮, 襲, …袞龍袍· 褙褙· 帖裏次團領· 褙褙· 帖裏次團領褙褙· 帖裏· 士庶人, 凶禮, 襲, …團領· 褙褙· 帖裏…
 7) 純宗實錄附錄, 高宗喪小殮衣摺, 黃袍·貯褙褙·帖裏·團領·褙褙·帖裏·紅紵絲團領·褙褙·白 袴二
 8) 太宗實錄, 卷10, …定諸道青色防衣… 樂學軌範, 卷之9, 防衣.
 9) 高麗· 忠烈王, 鄭石歌, …모쇠로 만든 털릭…
 10) 喪禮備要, 卷四, 喪禮, 襲, …大帶·深衣(圓衫)方領·(無深衣用直領衣..女喪圓衫或蒙頭衣或長襖子)·答褙 裏肚袍襖汗衫單袴襪·充耳瞑目握手履一雙冒…
 11) 高英津, ‘16세기 喪祭禮書의 發展과 그 意義’, “奎章閣”14, p.107-117, 1991.
 12) 재인용, 金長生, “四禮便覽(跋)”, …繼家禮而言禮者在我東 惟喪禮備要爲最切 今士大夫皆遵之…
 13) 장인우· 이춘계, 15~17세기 禮書에 나타난 殮襲衣와 그 意味, 韓國服飾學會, 第25號, p.280, 1995.
 14) 英祖實錄 卷41, …武臣之服黑天翼着…
 15) 柳慕卿· 金美子· 姜淳弟, 安東金氏墓發掘調查報告書, 溫陽民俗博物館, 1989.
 16) 正文公愼終錄, 大殮, …天翼… 忠文公愼終錄, 大殮, …天翼…

〈표 1〉 첩리의 용어

명칭	시대	출전	반침옷	용복	내용
털릭	고려 충열왕	정석가		○	“모쇠로 털릭…”
방의防衣	1400-1418	태종실록 권10		○	定諸道青色防衣
첩리貼裏		국조오례의 권4홍례 습조	○		…貼裏 ……
첩리貼裏	1418-1450	세종실록권10. 33-36년			…黑綠暗花 貼裏…
첩리貼裡	-1456	유성원변계수록 권25	○	○	…公服者 公服之裡 必帖裡廣帶…
첩리貼裏	1455-1468	세조실록 권4-29 2년7월조			…貼裏 白袖…
첩리帖裏	1485	經國大典, 권 三, 禮典, 雜令	○		…衣服帖裏及裳毋過十三幅…
방의謗衣	1493	악학궤범 권지9		○	군복/주름이 잡힌
털릭	1518-중종12	박통사언해초간			… 거문털릭…
첩리貼裏	1506-1544	중종32년	○		… 令兒妓四人着帖裏…
첩리貼裏	1593	선조실록, 26년, 5월	○		…襲時…帖裏 羅團領 袴褶…
첩리貼裏	1674-1720	이익성호한설 상		○	…上下戎袴褶貼裏…
첩리貼裏	1743	영조 19년, 3월.		○	…武臣不肯着帖裏衣 必着直領…
천의天翼	1724-1776	영조실록 권41		○	…武臣之服黑天翼着…
천의天益	1749	국혼정례 권1, 대전의례			…草綠吐袖襦天益
첩리貼裏 帖裡	1783-1806	이궁익연려실기술별집23		○	… 戎服 貼裏即 袴褶也… …淺木綿團領 一白紵布帖裡 一鹿皮鞋…
첩리貼裏	1786	정조10년, 7월		○	…青帖裏 乃是堂下吉服…
첩리貼裏	1793	정조17년, 10월.		○	…祛帖裏用軍服之論…
첩리貼裏	1796	증보문헌비고권79 예고26		○	貼裏至是始常制…
첩리貼裏		증보문헌비고 권66	○		…襲時 袴履 一帖裏 ……
첩리貼裏	1776-1800	정조실록권38,28장		○	…至於貼裏武臣之平常…
첩리貼裏	1807	純祖 7년, 2월	○	○	…當依禮曹節目 改着黑帖裏…
帖裏 天翼		燕行錄選集			…衣裳或白或紫制如我國帖裏而袖窄… …朱笠具纓插虎鬚 紅天翼白羽箭…
천의天翼	1762-1836	정약용 疇言覺非 권 2			…貼裏…以爲天翼…
천의綴翼		정약용 필언각비 권2			…貼裏…以爲綴翼…
天翼綴翼		雅言覺非			…帖裏…今俗吳以爲天翼…綴翼…
천의天翼	1815	純祖15년, 12월		○	…今番則將臣以下戎服…淺淡天翼黑帶
첩리貼裏	1800-1834	순조실록 권34. 34년	○	○	…貼裏今變爲窄衣…
첩리貼裏	1814-1888	李裕元林下筆記 권15 문헌지장론 권5362			…士大夫皆着帖裏…
帖裡		대동야승		○	…御前出入侍衛時…穿帖裡絲帶…
첩리貼裏	1834-1849	헌종실록 8년 권9.8장		○	…紅色貼裏 非徒爲物來之…
첩리貼裏	1863-1907	고종권16. 11월년		○	…朝臣戎服貼裏即衣舊隨…
첩리貼裏	1890	고종27년, 10월		○	…敎曰 以布帖裏磨鍊…
천의天翼					
첩리貼裏	1907-1910	순종실록부록 권17	○		…襲時 …貼裏 ……
천의千翼		이조풍속자료집요			…以爲千翼…

볼 수 있다.

2. 첩익(綴翼)·천익(天翼·千翼)

18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명칭 「첩익(綴翼)」의 綴은 「잇는다」는 뜻이고, 翼은 날개를 뜻하여 주름을 날개에 비유한 주름을 이은 옷이라 할 수 있다. 「천익(天翼)」 역시 여러 개의 주름으로 이루어진 옷으로써 명칭이 의복형태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첩릭」은 조선중기 이후 명칭에 관계없이 용복 중심으로 착용되고 있음을 뜻한다(〈표 1〉 참조). 이러한 「첩익」의 착용역할이 용복으로 변화함으로써 그 착용자가 일반 사서인(士庶人)에서 소수의 무관(武官) 중심으로 변화하였으며, 여기서 조선중기 이후 출토복식 가운데 「첩리」의 양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과 출토된 무덤의 피장자 대개가 무관(武官) 중심인 것도 이 사실과는 전혀 무관하지는 않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 참조) 이렇게 「첩리」에 있어서 착용역할이 일상복에서 용복으로의 변화는 이에 따른 명칭변화를 필요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몽고에서 군복이었던 「terlic」을 중국화하는 과정에서 「천익」 혹은 「첩익」이 되었으나,¹⁷⁾ 이는 단순한 발음에 의한 사음대자¹⁸⁾만은 아니라 의복의 형태를 반영¹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용복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나타난 「첩릭」은 실록 등에서 「첩리」²⁰⁾와 함께 혼용되는 반면 (〈표 1〉 참조) 사례서(私禮書)에서는 「천익」·「첩익」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첩리」란 「천익」을 이른다²¹⁾하여 그 명칭이 실생활에서는 「천익」으로 통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

욱이 염습의의 물목(物目)인 안동김씨 신정록에서 「천익」²²⁾을 사용한 것은 이를 입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 첩리의 출토현황

출토지	추정연대	지위	첩리
홍계강	1450	進士 → 兵曹參議	5
문양군			6
정용두	1508-1572	判中樞府事	23
이언웅	중종-선조	懿惠翁주의 손주사위	2
태안군			1
순천김씨	1537-1594		2
김위	임란전후	縣監	3
장흥임씨	1590	將軍	1
김덕원		將軍	
김덕령	1567-1596	將軍	2
박신룡		將軍	2
총 계			44

이상과 같이 문헌에 나타난 「첩리」는 일상복 중 받침옷과 용복의 두 역할이 조선시대 전 시기에서 공존하고 있으나 특히 조선중기 이전시기에서는 받침옷 중심으로, 그 이후는 용복 중심으로 그 착용역할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착용자 역시 일반대중에서 무관으로 변화하였다. 「첩리」는 전기에서, 「첩릭」은 후기에서 그 사용시기를 달리하고 있다. 여기서 의복의 착용역할과 연관지을 때 일상복의 받침옷으로 착용과 「첩리」의 사용시기가 일치하며, 후기의 용복으로의 착용과 「첩익」의 사용

17) 이은주, '첩릭의 명칭에 관한 연구' vol 12.no 3, 한국의류학회지, p.368~p.369, 1988.
 초기 몽고의 군인과 군인 의미의 'terlic'이 중국과 조선에 전파되면서 중국식의 한자음이 정착한 것이 첩리이며, 이후 우리나라식으로 변화정착이 天益과 綴翼이다. 따라서 帖裏란 몽고의 'terlic'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명칭산 혼란에 의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18) 저고리의「赤古里」 혹은 치마의「赤巾」와 같이 음만을 빌려온 명칭
 19) 弊衣 즉 깃털로 된 트임이 있는 의복으로 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衣似袍 등등
 20) 대개의 경우 염습의의 의복으로 받침옷을 지칭할 때 나타나고 있다.
 21) 鄭若鏞, 正言覺非, 卷2, 帖裏…以爲天翼, …以爲綴翼…
 22) 正文公愼終錄, 大旒, …天翼…
 忠文公愼終錄, 大旒, …天翼…

첩 리 _____

철 익 _____

18세기

〈그림 1〉 명칭의 변화시기와 사용

시기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중기에 있어서 융복의 착용임에도 불구하고 「첩리」가 사용되는 시기를 볼 수 있다. 이는 새로운 명칭이 출현하는 시기임을 의미한다고 본다. 즉 의복명칭은 동일 의복에서도 그 착용역할에 따라 변화하나, 그 시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과도시기를 필요로 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시대에 따른 「첩리」와 「천익」의 명칭이 조선초기에서는 첩리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 때에도 융복일 경우는 「방의」 혹은 「털릭」으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중기에서는 의복의 역할이 융복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은 첩리를 사용하였다. 후기에 있어서 융복의 명칭인 「천익」·「철익」이 등장하였으나, 받침옷일 경우는 「첩리」를 사용하고 있다. 말기에 있어서는 역할에 관계없이 「천익」을 사용함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첩리」의 착용역할이 시대에 따라 받침옷과 융복으로 비교적 뚜렷한 반면 명칭은 두 명칭이 혼용되면서 「첩리」에서 「천익」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명칭은 그 착용역할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Ⅲ. 첩리의 유형변천

첩리는 길(胴)·소매(袖)·치마(裳)·옷깃(領)·고름의 구성요소가 상의하상(上衣下裳)으로 이루어진

포(袍)이며, 그 가운데 길(胴)과 치마(裳)의 연결선을 유형의 특징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상·하(上·下) 길이의 비에 따라 유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²³⁾이나 과거의 실물자료인 출토복식에 나타난 유형은 〈그림 2〉와 같이 [유형1]과 [유형2]의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또 그 구성요소의 형태적·수치적 성격은 〈표 3〉과 같다.

1. 유형 1

[유형1]은 출토지 순천김씨·홍계강·정응두·이팽수의 분묘에서 출토되었으며, 이는 각 출토지의 추정연대에 의하면 15세기부터 16세기에 집중되어 있다(〈표 2〉 참조).

[유형 1]의 옷깃은 칼깃이며 이중깃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이중깃은 동국대학교 박물관소장의 백저포의 이중깃²⁴⁾과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고려시대 의복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이러한 이중깃의 첩리는 조선시대의 포(袍) 가운데 오래된 유형임을 의미하며, 또한 동시대(同時代)의 다른 의복인 장의(長衣)와 액주음(腋主音)²⁵⁾에서도 볼 수 있다. 이는 이중깃이 칼깃뿐 아니라 목판깃에서도 공존하였음과 이 시기에 이중깃구성이 단일깃구성과 함께 공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형 1]의 소매는 직선이거나 혹은 직선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진동과 수구의 차가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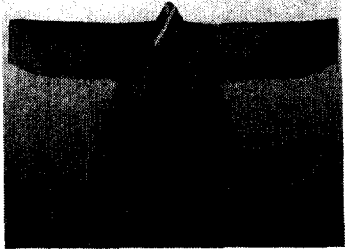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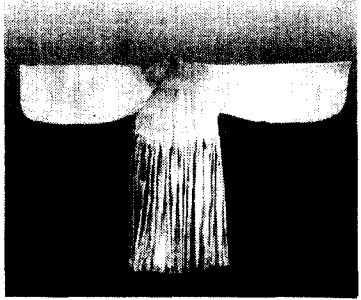
23) 高福男, 韓國傳統服飾史研究, 一潮閣, 1986.

김찬주, p.56, 앞글.

고복남·김찬주는 첩리의 깃이 칼깃에서 시기별로 도투마리(김찬주는 완만한 형의 깃)으로 변천하였으며, 上·下의 길이의 비는 고복남은 시대가 올라갈수록 상의가 길어진다고 하였고, 김찬주는 그 비율이 1:1-2에 이른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24) 안명숙, 문수사 유물 袍와 織物類에 관한 研究, 大韓家政學會誌, 24號, p.86, 1986.

25) 朴聖實,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世宗大學校 大學院, 家政學科 博士學位論文, p.186~p.201, 1992.

1-1	1-2
	
순천김씨	김위
홍계강	장홍임씨
정용두	김덕령
이언웅	김덕원
	박신룡

〈그림 2〉 첩리의 유형과 출토지

특히 순천김씨의 모시 첩리는 완전히 직선소매이며, 이를 제외한 대부분은 곡선소매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소매 역시 동시대의 다른 의복인 단령·직령²⁶⁾의 소매와도 일치하고 있다. 구성유형에서 [유형 I]은 홑겹·겹·숨 혹은 숨누비로 계절에 따라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색상에서 [유형 I]은 갈색·자색·소색·유록색 등이 있으나 대부분이 상색(緋色)²⁷⁾이다. [유형 I]의 수치적 구성에서 총길이는 평균 약117.8cm이고, 상의(上衣)의 길이는 약58cm이며, 치마(裳)의 길이는 61cm이다. 따라서 상·하길이의 구성비는 약1:1.1로 상·하가 유사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화장은 약122cm이며, 총길이와 화장의 구성비율은 1:1.03인 것으로 화장이 총길이보다 길게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

2. 유형 II

[유형 II]는 김위·장홍임씨·김덕령·김덕원·박신룡의 출토지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각 출토지의 추정연대에 의하면 16세기 중반이후에 집중된 것을 볼 수 있으나 그 수(數)가 앞시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표 2) 참조.

[유형 II]의 옷깃은 단일깃으로 앞시기 이중깃과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단일깃구성은 동(同)시대의 다른 의복인 단령·창의·도포²⁸⁾등 여러 의복에서 공통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소매의 형태에서 [유형 II]는 진동과 수구의 차이가 있으며, 겨드랑이의 진동부위가 좁아지고 있는 곡선소매를 이루고 있다. 이 역시 첩리뿐 아니라 창의 등 다른 의복에서도 함께 일어나는 변화이며, 이는 소매의 형태변화

26) 朴聖實, p.186~p.201, 앞글.

27) 상색(緋色)은 연한 갈색으로 명주의 황변에 의한 색으로 염색을 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다.

28) 朴聖實, p.340~p.360, 앞글.

가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성유형에서 [유형 II]는 대부분 두 겹으로 이루어져 앞시기의 것과는 달리 계절에 관계없이 착용하였다고 본다. 또한 색상은 갈색·청색·홍색 등으로 다양한 유색(有色)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형 II]의 총길이는 약130.6cm이고 상의(上衣)의 길이가 약47cm로 [유형 I]보다 약 11cm 짧아지고 있다. 이 시기의 저고리 길이가 45-52cm로 짧아지고 있음²⁹⁾을 고려할 때, 여기서 첩리의 상의(上衣) 길이가 당시의 저고리 길이와 유사하다. 이는 첩리의 상의(上衣)는 저고리 길이와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상(裳)의 길이는 [유형 II]가 82cm로 [유형 I]보다 약 21cm 정도 긴 반면 상·하구성비는 [유형 I]의 1:1에서 [유형 II]의 1:1.75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상·하구성비의 변화가 상의(上衣)가 짧아진 것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형변화에서의 상·하구성비의 변화는 일차적으로 앞시기의 [유형 I]보다 뒷시기의 [유형 II]의 총길이가 길어진 점과 다음으로 상의(上衣)의 길이가 당시 저고리의 길이와 같이 짧아짐에 따른 영향으로 자연히 치마(裳)의 길이가 길어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이후 첩리의 상의(上衣)길이가 시대가 내려올수록 짧아지는 것을 반영하는 반면 [유형 II]의 화장이 [유형 I]보다 짧아지고 있다. 즉 총길리와 화장의 비율이 전기의 1:1.03에서 후기에서는 1:0.9로 전체 구성에서 소매의 구성이 축소되어 기능적으로 변화한다.

이상과 같이 실물에 의한 첩리의 두 유형은 깃구성·구성유형·소매종류·색상·상하구성비·총길이·총길리와 화장의 구성비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유형의 차이는 구성요소의 시기적 변화가 적용된 경우, 다른 의복의 구성이 적용된 경우, 또 첩리의 역할이 변화에 의한 경우로 그 원인을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구성요소 가운데 옷깃과 소매의 시대적 변화가 적용된 경우이다. 깃구성이 이중깃에서 단깃으로 변화와 소매형태가 진동과 수구가 넓으면서 직선

형인 소매에서 진동부위가 좁아져 배래가 곡선인 소매로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첩리뿐 아니라 장의·도포·창의 등 다른 의복에서도 함께 일어나는 변화로 구성요소의 시대적 변화가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다른 의복인 저고리의 구성변화가 적용된 경우이다. 첩리의 상하 구성에서 상의(上衣)가 짧아지고 치마(裳)가 길어진 변화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상의의 길이가 약58cm에서 42cm 정도로만 짧아진 것과 시대가 내려올수록 첩리의 상의가 짧아지는 것은 바로 저고리의 길이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즉 저고리의 길이변화는 첩리의 상하구성비의 변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추정할 수 있다.

셋째, 일상복 중 받침옷(襖衣)에서 융복의 겹옷(表衣)으로의 의복의 역할변화에 의한 경우로 구성요소 중 총길이·총길리와 화장구성비·구성유형·계절·색상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유형 I]은 총길이를 짧게 이루고 구성유형을 계절에 따라 달리하는 반면 색상은 무색 중심을 이룸으로써 의복의 미(美)보다는 활동성과 기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유형 II]는 총길이를 길게 이루고 구성유형이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한 반면 색상은 유색(有色) 중심을 이룸으로써 의복의 착용기능보다는 미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형 I]은 받침옷인 「첩리(帖裏)」의 구성으로, [유형 II]는 융복으로써 표의(表衣)인 「철릭(綴翼)」의 구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실물에 의한 유형변화는 16세기중반에서 볼 수 있으며, 여기서 뒷시기의 [유형 II]로 변화한 이후에는 [유형 I]을 거의 볼 수 없다. 이는 명칭의 경우 뒷시기의 「철릭」이 등장한 17·18세기 이후에도 앞시기의 「첩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유형은 변화한 이후에는 이전 유형으로 회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형변화가 일어나는 16세기 중반과 17세기의 이전의 받침옷을 창의가 대신하고 있으나, 실제 융복의 명칭인 「철릭」은 18세기에 비로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

29) 장인우·이춘계, 16·17세기 저고리 형태에 관한 연구, 韓國服飾學會 24號, p.44, 1995.

〈표 3〉 첩리의 구성

유형	출토지	명칭	깃		의복의 유형	재질	색상	상의 길이	하의 길이	상·하 비율	총 길이	화장	진동	수구	길이: 화장	주름 나비
			종류	유형												
순천김씨		갈색명주누비3	칼깃	이중깃	숨누비	무명	갈색	52	62	1:1.2	114	+118			1:1.04	0.2
		소색모시 4	칼깃	이중깃	흡겹	모시	소색	51	62	1:1.2	108	140			1:1.3	0.1
홍계강		연록전지연화문사	칼깃	단일깃	흡겹	명주	연록색	62	58	1:0.93	120	131	39	32.5	1:1.1	
		백색저포	칼깃	이중깃	흡겹	모시	백색	60	55	1:0.9	115	132	37	27	1:1.5	
		연록수과문단	칼깃	이중깃	겹	명주	연록색	57	65	1:1.4	121.5	123	38	29.5	1:1.01	
		녹색팔보운문단	칼깃	이중깃	겹	명주	녹색	57	66	1:1.5	122.5	128	38	28	1:1.04	
		자색명주	칼깃		숨	명주	자색	61	60	1:0.98	121	121	34.5		1:1	
이언웅		갈색명주첩리	칼깃		겹	명주	갈색	54	56		110	109	46	28	1:0.9	
1-1 정응두		녹팔보운문단	칼깃	이중깃	흡겹	명주	녹색	62	67	1:1.08	129	123	48	51	1:0.95	
		상색팔보운문단	칼깃	이중깃	흡겹	명주	상색	59	59	1:1.01	118	123	45	46	1:1.04	
		상색팔보운문단	칼깃	이중깃	흡겹	명주	상색	58	62	1:1.06	120	126	47	51	1:1.05	
		상색노방주	칼깃	이중깃	흡겹	명주	상색	59	61	1:1.03	120	133	47	44	1:1.1	
		아청명주	칼깃	이중깃	숨	명주	상색	61	59	1:0.96	120	110	42	40	1:0.9	
		유록명주	칼깃	이중깃	숨	명주	유록색	61	61	1:1	122		45	45		
		상색명주	칼깃	이중깃	숨	명주	상색	61	57	1:0.93	118		44	43		
		상색명주	칼깃	이중깃	숨	명주	상색	53	65	1:1.2	118	72	46	45		
		상색명주	칼깃	이중깃	숨누비	명주	상색	53	61	1:1.15	114	114	39	37	1:1	
		상색명주	칼깃	이중깃	숨누비	명주	상색	54	56	1:1.03	110	104	41	38	1:0.9	
		상색명주	칼깃	이중깃	숨누비	명주	상색	51	60	1:1.17	111	105	44	42	1:0.95	
							57.3	60.8	1:1.08	117.8	122	42.6	38.6	1:1.03		
1-2	김위	갈색명주겹3	칼깃	단일깃	겹	명주	갈색	46	86	1:1.9	133	102			1:0.8	3.4
		갈색명주겹4	칼깃	단일깃	겹	명주	갈색	46	82	1:1.8	125	115			1:0.92	2.3
		겨자색명주홀5	칼깃	단일깃	겹	명주	겨자색	46	82	1:1.78	129	114			1:0.9	2
	장흥임씨	소색첩리	칼깃	단일깃			소색	47	75	1:1.59	122	128	26.5	29	1:0.92	1.5
	김덕령장군	무명첩리	칼깃	단일깃	흡	무명	백색	50	71.5	1:1.43	127	110	30	25	1:0.9	맞주름
	김덕원	소색칠보운문단	칼깃	단일깃	운문단	소색	45.5	84.5	1:1.85	130	124	34.5		1:1.4		
	박신룡	청천력	칼깃	단일깃		명주	청색	46	94	1:1.04	140	117	33		1:0.86	
		홍천익	칼깃	단일깃		명주	홍색	48	81	1:1.68	139	111	28		1:0.83	
								46.8	82	1:1.75	18.1	15.6	29.7	28.7	1:0.9	

[유형 I] _____
 [유형 II] _____

17세기중반

〈그림 3〉 유형의 변천시기와 착용

로 동일 의복일지라도 유형과 명칭의 변화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약 1세기라는 격차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첩리의 경우 착용역할에 따른 의복변화는 그 유형에서 1차적으로 일어난 이후 이에 따른 명칭은 필요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Ⅲ. 결 언

조선시대 문헌과 실물자료인 출토복식에서 첩리의 명칭과 유형의 변화를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의복의 착용역할이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한국복식의 변천원인 가운데 하나가 의복의 착용역할에 근거함을 알 수 있었다. 조선시대 첩리는 두 종류의 착용역할을 지녔으며, 하나는 일상복이고 다른 하나는 융복이었다. 이러한 첩리의 두 착용역할은 조선시대 전 시기에서 공존하였으나 조선 중기이전에는 일상복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에는 융복을 중심으로 시기에 따라 그 착용역할을 달리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의복의 역할에 따라 그 명칭과 유형을 달리하였음을 볼 수 있다.

첩리의 착용역할이 일상복인 경우는 그 착용자가 왕이하 사서인(士庶人)의 일반대중이었으며, 포류(袍類) 가운데 받침옷(褻衣)이며, 그 명칭은 받침옷의 기능을 상징하는 「첩리(帖裏·帖裡)」를 사용하였다. 또 그 유형은 의복의 총길이를 다른 포(袍) 보다 짧았으며, 구성유형은 계절에 따라 홑겹·겹·숨·숨누비 등 다양하고, 색상은 갈색과 무색(無色) 중심이며, 재질은 일부 명주와 모시와 함께 주로 무명이 사용된 것으로 활동성과 기능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착용역할이 융복으로 착용된 경우는 무관(武官)의 겹옷(表衣)으로, 명칭은 의복의 형태를 상징하는 「철익(綴翼·天翼)」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명칭은 전기에는 「털리」 혹은 「방의(防衣)」를, 또 조선중기에는 「첩리」를 사용하였으며, 후기에 비로서 「철익」을 사용하였으나 시기에 따라 명칭을 혼용하였다. 그 유형은 의복의 총길이가 길어졌으며, 구성은 계절에 관계없이 두 겹 구성인 반면 색상은 갈색·홍색·청색의 유색(有색) 중심이며, 재질은 운문단을 비롯한

명주로 이었다. 즉 겹옷으로써 의례적 의미가 부가된 「미」를 중심으로 이루고 있다.

첩리의 구성상의 특징인 상의하상(上衣下裳)의 유형변천은 조선초기 약1:1에서 후기 1:1.8(2)로 시대가 내려올수록 치마(下裳)가 길어지지만 이 두 유형의 교차시기는 조선중기 즉 16세기중반 전후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하구성비 변화의 요인은 첫째로 첩리의 역할이 받침옷에서 겹옷으로 변화함에 따라 의복의 총길이가 길어진 점과, 둘째로 상의(上衣)가 저고리의 길이와 유사한 것으로 시대가 내려올수록 점점 짧아진 것의 영향을 받은 점이라 추정한다.

이상과 같이 첩리를 통하여 볼 때 의복의 변천원인에는 착용역할의 변화가 하나의 독립변수이며 명칭과 유형은 이에 의하여 종속적으로 변화하며, 여기서 유형변화가 먼저 일어나며, 이에 의하여 명칭이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철익의 경우 이러한 유형변화에 이어 명칭이 변화하는 기간은 약 1세기정도의 과도기를 필요로 하였으며, 유형은 변화이후에 이전 유형으로 회귀하지 않는 반면 명칭은 변화이후에도 이전 명칭이 혼용됨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첩리에 나타난 유형과 명칭의 변화현상을 통한 변천요인을 살펴본 것이었으나, 그 대상이 첩리에 한정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다른 의복에서의 현상은 다음의 연구로 지속하기로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國朝五禮儀, 奎章閣 影印本.
- 2) 申義慶, 喪禮備要, 서울대학교 奎章閣 圖書 도서번호1258.
- 3) 金 集, 疑禮問解續, 서울대학교 奎章閣 圖書 도서번호5731, 1646.
- 4) 金長生, 疑禮問解, 서울대학교 奎章閣 圖書 도서번호4117, 1646.
- 5) 家禮考證, 券之2 서울대학교 奎章閣 圖書 도서번호717 1624(인조4).
- 6) 家禮輯覽, 서울대학교 奎章閣 圖書 도서번호6913, 1685.

- 7) 북한·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사회과학원출판사, 이조실록, 여강출판사, 1991.
- 8) 金英淑·孫敬子, 韓國服飾史資料選集, 敎文社.
- 9) 金東旭·劉頌玉, 重要民俗資料指定調查報告書第80號, 廣州李氏衣服一括遺物, 1980.
- 10) _____, 重要民俗資料指定調查報告書第82號, 忠北清原郡求禮孫氏墓出土遺物, 1980.
- 11) _____, 重要民俗資料指定調查報告書第83號, 忠北清原郡傅朴將軍墓出土遺物, 1980.
- 12) _____, 重要民俗資料指定調查報告書第84號, 忠北槐山郡金緯墓出土遺物, 1980.
- 13) 金東旭·李樹鳳, 壬亂前後出土服飾 및 喪禮, 忠北大學校 博物館 調查報告書第8冊, 1983.
- 14) 金東旭·高福男, 出土 朝鮮時代 遺衣의 服飾史의 研究, 服飾第2號, 1978.
- 15) _____, 重要民俗資料 調查報告書 第63號, 文化財管理局, 1978.
- 16) _____, 重要民俗資料指定調查報告書第75號, 重要民俗資料(服飾), 文化財管理局, 1979.
- 17) 金東旭·金榮子·張仁又, 出土遺衣 및 近代服飾論攷, 忠北大學校 博物館調查報告 第20冊, 1983.
- 18) _____, 出土遺衣 및 近代服飾論攷, 忠北大學校 博物館 調查報告 第22冊, 1988.
- 19) 柳喜卿·金美子·姜淳弟, 安東金氏 墓出發掘調查報告書, 溫陽民俗博物館, 1989.
- 20) 柳喜卿·金美子, 晋州河氏 墓出土文獻과 服飾調查報告書, 건들바우박물관, 1991.21) 金明淑, 17世紀朝鮮時代 服飾 一例(1), 文化財 第19號, 1986.
- 22) _____, 洪禹協 墓 出土 17世紀 服飾論攷, 第37冊, 1993.
- 23) 高富子, 高陽市 幸信洞 出土 陽川許氏 遺物 小考, 檀國大學校 民俗博物館, 1993.
- 24) 沈富子·全惠淑, 文益新墓의 出土服飾, 服飾第4號.
- 25) 高麗大學校 博物館 所藏品 目錄, 高麗大學校 博物館, 1982.
- 26)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1986.
- 27) 朝鮮史研究會 淸음, 韓國의 歷史, 한울, 1985.
- 28) 李如星, 朝鮮服飾考, 白陽堂, 1947.
- 29) 金東旭, 增補 韓國服飾史研究, 亞世亞文化社, 1979.
- 30) 高英津, 15·16世紀末 朱子家禮의 施行과 그 意義, 韓國史論 21, 1989.
- 31) 장인우·이춘계, 15~17세기 禮書에 나타난 襪襲衣와 그 意味, 韓國服飾學會誌 第25號, 1995.
- 32) 장인우·이춘계, 16·17세기 저고리 형태에 관한 연구, 韓國服飾學會誌 第24號, 1995.
- 33) 高福男, 韓國傳統服飾史研究, 一潮閣, 1986.
- 34) _____, 韓國衣服의 類型과 樣式에 대한 分析研究, 世宗大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4.
- 35) 朴性實,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世宗大學校 大學院 家政學科 博士學位論文, 1992.
- 35) _____, 廣州郡突馬面 巧栗里 出土 全州李氏 義安大君 襄昭公派 遺物小考, 檀國大學校 民俗博物館, 1993.
- 36) 金東旭, 順天金氏 壬亂前 衣服 및 簡札, 忠北大學校 博物館 文化財管理局, 1979.
- 37) 安明淑, 文殊寺 遺物袍와 織物類에 관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4권, 1호, 1986.
- 38) 이은주, 첩리의 명칭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3권 3호, 1988.
- 39) _____, 첩리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13권4호, 1989.
- 40) 金正子, 帖裏考, 복식8호 1984.
- 41) 金贊珠, 첩리에 관한 服飾史의 研究, 서울대학교, 碩士學位論文, 1980.
- 42) 趙今衍, 帖裏에 관한 考察, 建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0.
- 43) 韓國文化財保護協會, 韓國의 服飾, 1982.